2013. 5.

산업경제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목 차

Ⅰ. 연수개요 ---------- 1~3

1 연수목적
2 연수현황
3 연수내용
4 연수자 명단
5 주요 연수일정

Ⅱ. 연수국 일반현황 ---------- 4~8

1 네팔 일반현황
2 네팔 경제동향

Ⅲ. 연수기관 및 연수결과 ---------- 9~14

1 주요 연수내용
2 시 사 점
3 연수성과

Ⅳ. 연수후기 ---------- 15~19

Ⅰ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새정부 농업 아젠다인 농업의 6차(생산-가공-서비스)산업화를 위한 농업관련 4차(생산-관광서비스)산업 진흥전략 연찬

○ 네팔의 양질의 산업인력을 우리 농촌지역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및 트레킹 관광을 우리 도의 지리산 덕유산 힐링단지 조성, 아름다운 순례길 등의 길 체험관광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

2 연수현황

○ 기　　간 : 2013. 4. 29(월) ~ 5. 3(금) / 4박5일

○ 연 수 국 : 네팔

○ 연수대상 : 15명(의원 7, 의원보좌 3, 정책연구 4, 농업전문가 1)

- 의　　원(7) : 산업경제위원 7명
- 의원보좌(3)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3명
- 정책연구(5) : 담당관실 2, 정책연구 2, 농업기술원 1명

3 연수내용

○ 주 네팔 한국대사관 방문을 통한 네팔 농촌산업인력 수급 관련 등 의견청취

○ 네팔관광청을 방문하여 자연자원을 관광 상품화 한 사례수집 및 히말라야 트레킹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 네팔 국립공원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보존과 발전이라는 시너지효과가 증대되는 현장 방문

○ 네팔 농촌관광형 마을을 방문하여 전통마을 체험과 민속춤을 관광 상품화한 사례 수집 현장 방문

4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영 문)	비 고 (성 별)
계			15명	
의 원 (7명)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7명)	위원장	김 영 배 (KIM YOUNG BAE)	
		부위원장	조 계 철 (CHO KYE CHUL)	
		위 원	강 병 진 (GANG BYUNG JIN)	
		〃	김 용 화 (KIM YONG HWA)	
		〃	김 택 성 (KIM TAK SUNG)	
		〃	오 균 호 (OH KYUN HO)	
		〃	이 상 현 (LEE SANG HEYEN)	
의원보좌 (3명)	산 업 경 제 전문위원실 (3명)	전문위원	하 성 용 (HA SEONG YONG)	
		직 원	윤 재 준 (YOON JAE JUN)	
		〃	조 형 식 (JO HYEONG SIK)	
정책연구 (4명)	총무담당관실 (1명)	직 원	박 덕 영 (PARK DEOK YOUNG)	
	의사담당관실 (1명)	〃	김 민 준 (KIM MIN JUN)	
	정책연구팀 (2명)	정책연구 3 팀 장	양 영 철 (YANG YOUNG CHOL)	
		직 원	형 영 주 (HYOUNG YOUNG JOO)	
농업전문가 (1명)	농업기술원 (1명)	〃	박 성 희 (PARK SUNG 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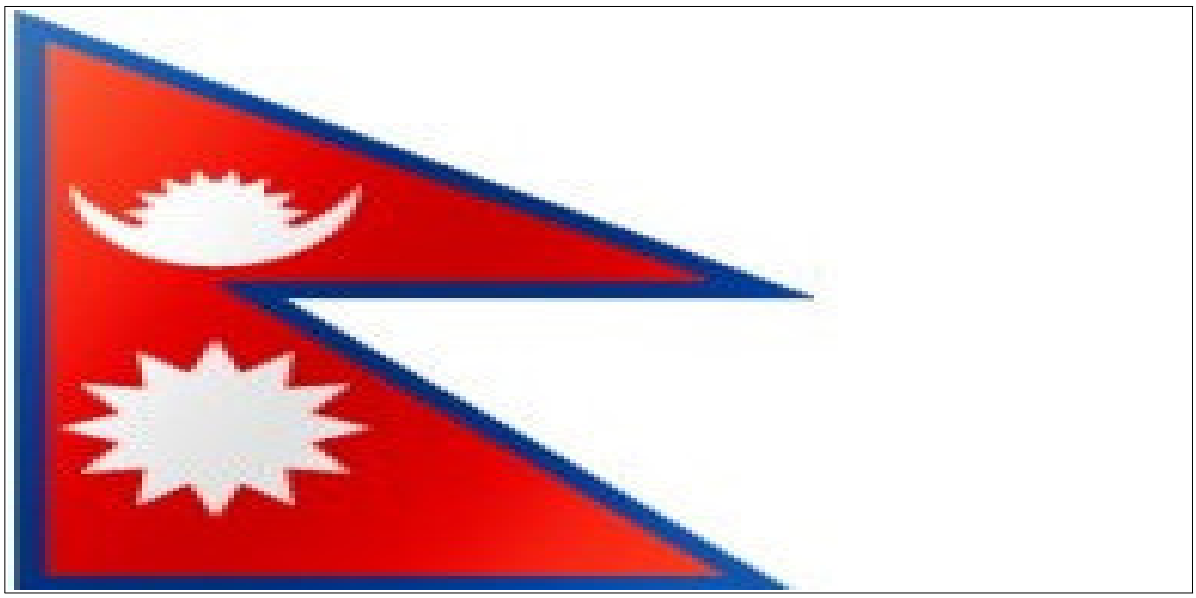
5 주요 연수일정

일 자	연수지역	주 요 일 정	비 고
4.29(월)	전 주→인 천 →카트만두	○ 전주 출발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	
4.30(화)	카트만두→포 카 라	○ NTB(네팔관광청) 방문 - 내 용 : 농업 4차산업(생산+관광서비스) 청취	
5. 1(수)	포 카 라→치 트 완	○ 네팔 치트완국립공원 방문 - 내 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는 국립공원 보존과 활용방안 체험 ○ 네팔 농촌관광형 마을 방문 - 내 용 : 네팔 전통마을 체험과 민속춤을 관광 상품화한 사례 수집	
5. 2(목)	치 트 완→카트만두	○ 주 네팔 한국대사관 방문 - 내 용 : 네팔 농촌산업인력 수급 관련 등 의견청취	
5. 3(금)	카트만두→인 천 →전 주	○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 후 해산	

II 연수국 일반현황

1 네팔 일반현황

1. 국기설명



네팔의 국기는 예로부터 네팔인이 종교적 행사에 사용해 오던 모형을 정형화한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 모양이 아닌 위아래 양쪽으로 2개의 삼각형을 포개어 놓은 형태이다.

1847년에 제정된 최초의 국기는 사람의 얼굴 형상이 그려진 양의 깃발과 음의 깃발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1923년에는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국기가 제정되었으나, 얼굴 형상은 유지하였다. 이후 1962년 12월 16일 네팔 헌법이 새롭 게 제정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의 국기로 수정되었다. 수정된 국기는 종래의 2개 삼각형 속에 사람의 얼굴 모습을 닮은 해와 달이 그려진 형태에서, 사람의 형상이 없는 현재의 형태로 바뀌었다.

네팔 국기의 테두리선인 감색은 하늘과 바다, 즉 세계를 상징한다. 바탕색을 이루고 있는 짙은 적색은 네팔인의 종교적 의식에 따라 행운을 의미한다. 적색 바탕에 상부 도안은 초승달, 하부 도안은 태양을 각각 의미한다. 초승달로부터 뻗어 나온 8개의 광선은 왕실과 평화를, 태양으로부터 12개의 광선은 재상 일가와 힘을 뜻한다. 전체적으로는 '달이나 태양과 같이 국가가 길이 번영하라'는 염원을 나타낸다.

2. 독립배경 및 위치



공식 국명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다. 북쪽으로는 중국의 티베트와 히말라야산맥을 사이에 두고 접하며, 그외 지역은 인도와 접한다. 카트만두 분지는 네팔계곡이라고도 불렸는데 그 계곡 이름에서 국명이 유래했다는 설과 성스럽다는 의미의 '네(Ne)'와 동굴이라는 의미의 '팔(pal)'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1951년 절대왕정이 끝나고, 의회 체제를 갖춘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후 1990년 다당제 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 모택동주의를 추종하는 반정부군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2001년에는 왕과 왕비 등을 포함한 10명의 왕족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6년 11월 정부와 모택동주의자들 간의 평화 협정이 마무리 되어 내전은 끝났다. 2007년에 왕정이 종식되고, 2008년 5월 28일부터 공화제가 되었다.

세계 10대 최고봉 가운데 8개를 보유한 국가로 지형이 험악하기로 유명한 산악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서 두 국가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되는 국가이다.
행정구역은 14개 주(anchal)로 이루어져 있다..

3. 국가개황

국 명	네팔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건 국 일	1951년 2월 18일
수 도	카트만두(Kathmandu)
면 적	14만 7,181㎢(남한의 1.5배)
인 구	2,933만명(2011년 기준)
민 족	아리안족(80%), 티베트・몽골족(17%), 기타 소수민족(3%)
언 어	네팔어
정부형태	공화제
국가원수	대통령 : 람 바란 야다브(Ram Baran Yadav) - 취임일 : 2008년 7월 총 리 : 바부람 바타라이(Baburam Bhattarai) - 취임일 : 2011년 8월
국내총생산	US$ 186억(2011년) 1인당 GDP US$ 642(2011년)
화 폐	네팔 루피(NRs)
종 교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시 차	3시간 15분(즉, 한국시간보다 3시간 15분이 늦다)

2 네팔 경제동향

1. 네팔의 경제 일반 개황

○ 네팔은 제조업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으며, 제조업의 대부분은 설탕, 맥주, 의류, 카펫, 담배, 면류 등 소비재 산업 위주임

○ 도소매업, 금융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데, 2011년 7월 기준 네팔 상장회사(209개) 중 84.7%(177개)가 금융업종임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빈번한 축제 등으로 인해 소비 비중은 높지만 국내 저축률은 낮음

2. 네팔의 산업 · 무역현황

○ 네팔의 공업은 초기 단계로, 주요 산업은 대부분 국유화 운영

○ 네팔 정부는 국제시장 가격경쟁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건설을 위한 3개년 계획(three year interim plan)를 추진 중임

○ 네팔 정부는 2010 회계연도 기준 GDP의 약 33%를 농업 부문에 최우선 투자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황임

○ WTO 가입 8년째를 맞는 네팔은 WTO체제에 맞게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제정 준비 중임

○ 네팔은 산업생산량 및 생산성 향상, 고용 및 기회 창출, 및 수입대체와 수출증진 등을 위한 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Industrial Policy 2010을 시행 중임

○ 내륙국인 네팔은 수송상의 장애, 숙련공 부족, 전력,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 낙후로 투자 여건이 여의치 못해 외국자본 유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3. 네팔의 전통적인 외화산업인 관광업

○ 네팔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도 카트만두에 5개의 일급 호텔과 카지노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카트만두의 대기 오염 심화, 단조로운 관광상품 등으로 관광객 유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8년 기준 네팔의 호텔 수는 97개, 유스호스텔 수준의 비호텔은 647개로 대규모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임

○ 네팔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 2의 국제공항 건설(Dumberbaba Nijgad of Bara District)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12년를 네팔 관광의 해(Nepal Tourism Year 2011~12)로 지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4. 한국-네팔과의 무역동향

○ 한국과 네팔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의 수출은 주로 인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교역규모는 공식통계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교역규모 변동현황 】

(단위 : USD천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 네팔 수출	23,723	29,139	32,293	37,842	19,045
대 네팔 수입	968	1,063	905	2,237	1,738

【출처 : 관세청】

Ⅲ 연수기관 및 연수결과

1 주요 연수내용

1. 네팔관광청(Nepal Tourism Board) 방문

○ 네팔 관광객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관광객 수는 50만 9,752명이고,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11.6일로,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한국관광객 : 27,514명

※ 관광객 국가별 현황 : 아시아 56%(인도 18.4, 기타 37.6), 아메리카 10.1%, 유럽 30.2%, 아프리카 0.2%, 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 지역국가 3.5%,

○ 네팔 관광서비스산업의 수입이 국민소득의 52%를 차지하여 국가경제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히말라야의 천혜환경을 이용한 체험중심의 관광 즉, 휴양(recreation), 트레킹·등반객, 석가탄생지인 룸비니(Lumbini)를 방문하는 불교 성지 순례관광은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음

⇒ **지리산 덕유산 힐링단지 조성, 아름다운 순례길 조성시 참고 필요**

○ 네팔관광청은 네팔 트레킹을 등록허가제로 운영하며 가이드와 포터의 고용부터 관광개발에 이르기까지 관광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네팔 자연문화(치트완 국립공원) 탐방

○ 희귀한 인도코뿔소와 벵골호랑이의 서식지인 치트완은 197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UNESCO 세계유산으로 40종이 넘는 포유동물과 450여종의 조류가 살고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임

○ 30여만평에 달하는 동물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야생의 상태에서 방목하고 있었으며, 이 동물들을 관람하는 유일한 방법은 코끼리 등에 타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 또한, 카누를 타고 주변경관을 조망하며 수풀 사이로 악어를 볼 수 있고, 진귀한 새들의 울음소리가 그윽하게 들리는 국립공원의 일부지역을 관광산업에 접목시키고 있었음

○ 우리 도의 경우에도 관광개발을 명승지 중심이 아닌 체험형으로 개발하되 **개발유형에 따라 문광부와 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종합개발하는 방안 적극적 검토**

* 내장산 리조트 개발(예시) : 지자체+관광공사+농어촌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마사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리조트지역과 용산저수지 지역(수상레포츠), 국립공원 지역(말 크로스컨트리,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종합개발하는 방안 검토






3. 네팔 농촌 관광형 마을(타루족 전통마을) 방문

○ 타루족은 네팔 남부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걸쳐 있는 히말라야 산맥 기슭의 타라이 지역에 사는 종족으로 치트완의 원주민에 해당하는 종족으로 농경과 수렵에 의한 자급자족을 하고 있으며, 현재 네팔에 약67만명, 인도에 약 1만명이 살고 있음

○ 타루족은 전통가옥에서 생활하며, 길들인 야생 코끼리와 뛰어난 공예기술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매일 저녁 마을회관 같은 소극장에서는 전통무용 공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음

○ 우리 도의 경우에도 소그룹 단위의 전통공연(국악, 소리 등)의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4. 주 네팔 한국대사관 방문 간담

○ 방문개요

- 일　　시 : 2013. 5. 2(목) 14:00 ~ 17:00
- 장　　소 : 주 네팔 한국대사관 회의실
- 면 담 자 : 김일두 주 네팔 한국대사 외 3명

○ 주요 간담내용

- 네팔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청취
- 우리 도의 농촌산업인력을 네팔 인력으로 충원가능 여부 타진
- 네팔의 다양한 산악 기후를 활용한 한방 약초생산 가능여부 타진







【주요 간담내용】

① 네팔의 전반적인 동향 청취

- 네팔은 현재 과도기적 정부로 매우 정국이 불안정함
- 세계적으로 2위의 물 보유국이지만 만년설에서 흘러온 석회수를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물 부족국가임
- 수도인 카트만두의 경우, 교통체증과 먼지, 오염된 하천 등으로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여 개발이 시급함
- 농경지는 전 국토의 23%로 부족되지 않으나, 낙후된 농사기법으로 인도나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유지가 곤란할 지경임

② 네팔 인적자원을 우리 농촌산업인력으로 수급방안 간담

- 네팔과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23일자로 한국기업이 네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송출에 관한 한국-네팔 간 고용허가제(EPS)를 체결

  * 네팔 노동자의 한국취업 절차도 : 한국어시험 ⇒ 건강검진 통과, 구직등록,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 사전교육(한국어능력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 사증발급 등 출입국 ⇒ 한국 입국 후 2박 3일간 취업교육 ⇒ 계약사업장 배치

- 대상자를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지만 문맹율이 30%를 상회한 상황에서 시험응시생들 대부분 대졸자 이상으로 시험에는 유리하지만 이들을 우리나라 산업현장(3D업종)에서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우리 도의 농촌산업인력 수급과 관련 기존의 한국어시험제도를 완화하여 실제 3D업종(농촌인력)으로 활용가능한 인력이 송출될 수 있도록 대사관측에서 네팔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구

③ 한방 약초생산기지로 활용 검토

- 네팔은 해발 50~8,848m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해, 생육조건을 달리하는 다양한 약초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업현장에서 우호협력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

2 시 사 점

○ 정치적으론 헌법조차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전력,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투자를 유치하기에도 열악한 상황임

○ 이처럼, 당장 네팔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네팔만이 갖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활용한 농업투자나 네팔의 양질의 인적자원을 우리의 부족한 산업인력으로 확충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연수성과

○ 네팔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히말라야 트레킹(Trekking) 관광을 "지리·덕유산 힐링타운 조성"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마을별로 고유의 생활환경과 문화체험으로 관광객(트레커)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는 바,

○ **우리 전북도 아름다운 순례길, 둘레길, 마실길 등의 지역별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전북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

○ **네팔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우리 도의 농촌 산업인력으로 수급**하여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네팔의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우리 도의 한약재를 생산**하는 등 양국 상호간에 윈-윈(WIN-WIN) 가능성 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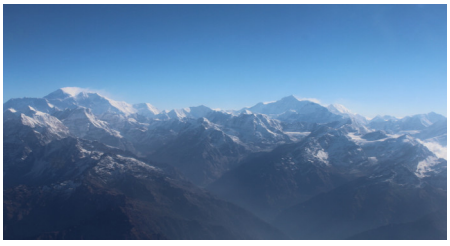
네팔 마을에서 농촌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영배

한 국가를 탐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국민들을 보고 느끼고 배움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잘사느냐 못사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

올해 전라북도의회 국외연수는 선진국 중심의 정책연수에서 벗어나 개발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 실시되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네팔로 향하게 되었다.

가는 지역마다 기온차가 크고,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되짚어 보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



네팔은 지구의 지붕이라 불리 우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도 이곳에 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갠지스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탄생한 ‘룸비나’라는 도시도 네팔에 있다.

따라서,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산악인과 힌두교, 불교인들이 네팔을 찾고 있다.
하지만 경제수준이 낮고 전기, 수돗물 등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살기 힘든 나라가 네팔이다.
세계 2위의 물보유국이지만 개발과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거리는 항상 어둡고, 호텔 어디에 가도 양초가 준비되어 있었다.
또한, 물이 많고 농경지가 많아도 당장 인접한 중국과 인도로부터 농산물을 수입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나라가 바로 네팔이다.



우리는 국외연수 기간 중 동서로 80㎞ 남북으로 23㎞에 이르는 거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치트완 국립공원의 한 마을을 찾았다.



마을은 다양한 농촌경관과 농촌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 그 지역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방문한 네팔 타루족 전통마을의 들녘에는 이제 막 수확을 마친 옥수수 밭과 얼마 전 심겨진 옥수수가 함께 한눈에 들어왔다.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 모두가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먼 나라에서 온 우리들을 바라보며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우리나라 60~70년대를 연상시키는 가난한 나라 네팔의 농촌마을 아이들이었지만 너무나도 값진 해맑은 미소를 갖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생산된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마친 뒤에는 네팔 타루족의 전통민속 공연이 시작됐다.



마을주민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와 전통악기 소리에 맞춘 신나는 율동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주민들의 손에 이끌리어 무대위에 올라가 함께 뛰면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비록 세련미는 없지만 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 등 마을의 특색을 개발해 농외소득을 올리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걷기열풍을 전북 농가에 도움이 되는 소득창출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과 로컬푸드 개념을 고려한 지역고유의 음식차림 등으로 마을별 차별화를 두고 코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농촌마을도 여행 플래폼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자연에 순응하는 네팔 농업, 선진한국 농업발전의 자부심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박성희



네팔은 서남아시아의 인도 및 중국과 접경한 내륙국으로 국토면적은 147,181㎢ (한반도의 2/3정도)로서 전체인구의 약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지형은 남쪽에서 북쪽을 따라 3개의 생태학적 지역 즉, 평원지역, 구릉지역 및 산악지역으로 구분되며, 경지면적은 2,968천ha로써 평원지역이 43.6%, 구릉지역이 50%정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약 1.7배나 되는 경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경지면적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식량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 인도,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및 국제기구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네팔은 아열대성 및 극한대기후로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열악한 경제력에 의한 농업시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자원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정책이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네팔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부족한 경지면적과 열악한 기후환경 속에서도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정책적인 지원 및 생산성 향상 연구사업에 의한 기술보급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네팔은 단위면적당 농산물 생산량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유통에 있어서도 창고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현황은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단체가 소유한 창고 수용 능력은 약 22만톤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포장도로는 전체의 34.2%로 농산물 수송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전국 1일 생활권의 토대를 만들어 모든 농산물이 생산과 동시에 전국 소비처로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네팔은 아열대기후 지역으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특별한 과일인 “두리안”이 생산된다. 두리안은 맛이 좋고 피를 맑게 해주며, 구충효과가 있어서 건강식품으로 효과가 있으나, 향기가 독특하여 사람들이 먹기를 꺼려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을 연구 개발한다면 전 세계 과일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 하여 수고를 낮추고, 특유의 냄새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소득작목으로 개발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번 연수에서 우리 농업기술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우리가 보유한 선진기술을 네팔 등 후진국에 전수하고, 이러한 나라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도입,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